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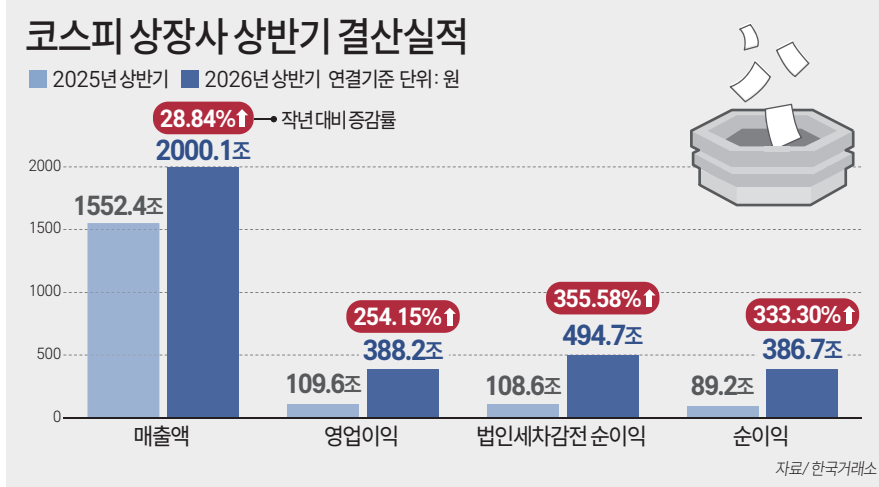
코스피 영업익 3.5배 ‘깡충’… 삼성·닉스가 60% 이상 차지

상장사 상반기 결산

매출액 2000조… 전년비 28.84% ↑
순이익 386조6740억… 333% 증가
반도체 제외 실적 개선 폭은 낮아져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크게 개선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5배, 순이익은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19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6년 상반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법인 634개사(금융업, 분할·합병,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 등 65곳 제외)의 연결 기준 상반기 매출액은 2000조12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88조1532억원으로 254.15% 급증했고, 순이익은 386조6740억원으로 333.30% 늘



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9.41%로 전년 동기 7.06%에서 12.35%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46조72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1.44% 급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상반기 영업이익이 98조1529억원으로 489.39% 급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영업이익

익을 합치면 244조8800억원으로, 코스피 전체 연결 영업이익의 60%를 훌쩍 넘어선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국내 증시 상장사 전체의 실적 개선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반도체의 영향력을 견어내면 실적 개선 폭은 크게 낮아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상장사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75.61%로 전체 증가율인 254.15%와 차이가 벌어진다. 순이익 역시

119.68% 증가에 그쳤다.

업종별 실적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기·전자 업종 64개사의 상반기 매출액은 582조74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4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53조5026억원으로 674.92% 급증했고 순이익은 255조7436억원으로 697.01% 늘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의 매출액 증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IT서비스(57.40%), 화학(22.02%) 등 16개 업종의 매출액이 증가했다. 반면 건설(-9.72%), 부동산(-17.07%), 통신(-3.05%) 등 4개 업종은 감소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에서는 전기·전자(674.92%), 일반서비스(237.04%), 화학(203.76%) 등 14개 업종이 증가했으나, 오락·문화(-33.55%), 운송·창고(-17.71%), 운송장비·부품(-6.17%) 등 6개 업종은 감소했다. 순이익의 경우에도 전기·전자(697.01%), 일반서비스(361.07%), 화학(432.14%) 등 13개 업종이 증가한 반면, 운송·창고(-62.53%), 의료·정밀기기(-

29.08%), 오락·문화(-22.30%) 등 7개 업종은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업종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모두 적자전환했다.

흑자기업 수는 증가했다. 연결 기준 분석 대상 634개사 가운데 상반기 흑자기업은 519개사로 전체의 81.86%를 차지했다. 지난해 동기 485개사(76.50%)보다 34개사 늘어난 규모다. 반면 적자기업은 149개사에서 115개사로 감소했다.

재무건전성도 개선됐다. 6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100.81%로 지난해 말 110.52%보다 9.71%포인트 낮아졌다. 자산총계는 5844조9014억원, 부채총계는 2934조2939억원, 자본총계는 2910조607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융업 42개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41조19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07% 증가했고 순이익은 31조9488억원으로 32.82% 늘었다. 특히 증권업 영업이익은 163.37%, 순이익은 161.00%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韓 증시 더블카운팅 15.5%… 美의 14배

올해 89조 중복… 평가가치 왜곡
모회사 할인·일반 주주가치 훼손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국내 증시의 중복상장에 따른 ‘더블카운팅’ (가치 중복계산) 규모가 미국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더블카운팅 이익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5%로, 미국 1.1%의 14.1배 수준이었다. 일본 11.1%, 영국 5.0%도 크게 웃돌았다.

더블카운팅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구조에서 동일한 기업가치와 이익이 시장에서 반복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더블카운팅 규모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대형 상장 자회사의 실적 증가로 빠르게 확대됐다.

2022년 14조원이었던 중복이익은 지난해 27조원으로 불었고, 올해는 89조원까

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 속 대형 상장 자회사의 실적 증가가 맞물려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이익 중복 규모가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코스피 예상 순이익 796조 가운데 89조원이 모회사와 자회사에 중복으로 반영되는 셈이다.

중복이익을 제거하면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은 7.0배에서 7.9배로 상승한다.

표면적인 PER이 실질적인 멀티플(평가배수)보다 낮게 보이며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 왜곡됐음을 방증한다. PER이 낮을수록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

신한투자증권 이장빈 연구원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구조에서는 동일한 기업가치와 이익이 시장에서 반복 평가되며, 이는 모회사 할인과 일반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 상장 자회사의 이익 기여도가 확대될수록 이런 괴리는 더 커질 수 있

어 단순한 PER 비교만으로 시장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는 모회사는 ‘3%룰’ 방식으로 주주동의을 받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중복상장 규제안의 핵심이다.

중복상장을 하려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영향 평가와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등 주주총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연구원은 “중복상장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일반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이 높은 중복상장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데 있다”며 “단순히 모회사 상장 여부만을 판단하기보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 상장 필요성, 일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따는AI로 생성한 ‘공격과 방어 양손잡이 전략을 구사하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관련 이미지.

서학개미, 구글·테슬라 담고 美국채로 방어

해외주식 Click

성장주, 방어적 자산에 자금 분산
순매수 1위 ‘알파벳 클래스A’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알파벳(구글)·테슬라 등 대형 성장주에는 거침없이 자금을 쏟으면서도 미국 단기국채와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로 변동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인공지능(AI) 투자 역시 반도체에만 머물지 않고 데이터센터·전력 등 인프라로 확장하고 있다. 성장주 상승에 베팅하면서도 리스크는 분산하는 ‘양손잡이 전략’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1~17일 서학개미 순매수 1위는 ‘알파벳 클래스A’였다. 매수 결제액은 1억 2714만달러, 매도 결제액은 1983만달러로 순매수 규모가 1억 730만달러에 달했다. 순매수액이 매도액의 6배를 웃돈다.

스페이스X 관련 투자상품(8029만달러)은 2위, 테슬라(7445만달러)는 3위에 올랐다. 상위 3개 종목에만 2억 6204만달러가 넘는 자금이 몰린 셈이다. 원화로 37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종목 두개가 나란히 상위권에 오르면서 서학개미들의 견고한 선호가 확인됐다.

서학개미들은 다른 한편에선 방어적 성격의 자산도 담았다. 아이셰어즈 0~3개월 미국 국채 ETF(5374만달러)는 4위를 기록했다. 뱅가드 S&P500 ETF(4456만달러)와 인베스코 QQQ(4188만달러)도 각각 5위와 9위에 올랐다. 단기 국채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S&P500과 나스닥100 등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함께 담은 것이다. 특정 종목의 변동성에는 노출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물가 지표 둔화도 이 같은 투자심리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4.7% 상승해 예상치를 밑돌았고, 근원 생산자물가지수(Core PPI)는 4.2% 상승해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PPI 둔화는 9월 금리 인상 명분을 약화했다”며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기준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67.1%로 확대됐다”고 짚었다.

개별 종목을 놓고 보면 AI 투자 열기가 반도체를 넘어 인프라 영역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4447만달러)와 알라게니 테크놀로지스(4426만달러) 각각 6위와 7위를 기록했다. 아이셰어즈 반도체 ETF(4267만달러)와 IRIS 에너지(4113만달러), 코어위브(3086만달러)와 블루 에너지(2804만달러)도 상위 20위권에 포함됐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

‘영웅문S# 간편모드’ 이용자 170만명 돌파

키움증권, 앱 설치 없이 바로 이용

키움증권은 자사 MTS ‘영웅문S#’의 ‘간편모드’ 누적 이용자 수가 170만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웅문S# 간편모드는 별도 앱 설치 없이 기존 앱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 앱 투 모드(One App, Two Mode)’를 지원한다.

앱 첫 설치 시 원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일반모드 이용자도 전체 메뉴나 홈 화면 상단의 화면 전환 버튼을 눌러 언제든지 간편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간편모드는 지난해 10월 출시됐다. 쉽고 직관적인 화면 구성으로 주식 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키움증권이 보유한 방대한 투자 데이터도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공한다. 초보 투자자는 간편한

투자 경험을, 숙련 투자자는 효율적인 매매 환경을 제공하며 편의성을 높였다.

간편모드에선 인공지능(AI)이 핵심 정보만 추려 알기 쉽게 전달한다. 고객이 복잡한 투자 정보를 일일이 찾아볼 필요가 없다. ▲AI 시황 리포트 ▲AI 종목 리포트 ▲국내·미국 리서치 AI 요약 ▲키움쏫츠 등 특화 콘텐츠를 갖췄다.

AI 시황 리포트는 생성형 AI가 국내외 증시 동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장 시작 전과 장중, 장 마감 후 핵심 내용을 요약해 전달한다. 지난 13일 기준 151만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키움쏫츠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투자 정보를 짧은 영상으로 풀어낸다. 직접 종목을 찾고 분석하지 않아도 하루 증시 흐름과 특장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삼성자산운용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 개인순매수 ‘1위’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가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5325억원으로 파킹형 ETF 중 개인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순자산은 약 1조 2482억원 증가하며 현재 순자산 7조 9774억원으로 파킹형 ETF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해 8월 상장한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는 1조 3128억원에 이른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초단기 채권과 기업어음(CP) 등 신용도가 높은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MMF)의 운용 방식 기반으로 설계된 ETF다.

/신하은 기자